

영구임대주택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 용 운
(성균관대학교)

한 창 근*
(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특히, 위험집단으로 평가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첫째,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총 347명의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사회복지실천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남성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다른 노인집단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자살충동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용어: 남성독거노인, 영구임대주택, 자살충동, 우울증,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글은 201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힙니다.

* 교신저자: 한창근, 성균관대학교(chkhan@skku.edu)

■ 투고일: 2014.10.31 ■ 수정일: 2014.12.16. ■ 게재확정일: 2014.12.24

I. 서론

우리나라의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독거노인의 수는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 일로에 놓여 있다. 과거에 주류를 이루던 배우자 및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의 감소로 인해 지난 14년간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은 1994년 13.6%에서 2011년 19.6%로 증가하여 노인독거가구가 노령인구의 주요한 가구유형 중 하나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정경희 외, 2012a).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자료에 의하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 1인가구가 2012년 현재 147만 가구(전체 가구의 34.5%)이며, 2035년이면 2012년 대비 2.8배인 410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12).

이러한 독거노인가구의 증가는 많은 노인들이 가족 및 친척 등 혈연의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무연사회(無緣社會)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전영수, 2011; 김범수, 2012), 노인독거가 지닌 비가역적(非可逆的) 속성으로 인해 일단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함께 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혼자 살아가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정경희 외, 2012b). 독거노인들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며, 고용·건강 및 의료·주거·경제(소득, 소비, 재산 및 부채)·복지 서비스·정신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더욱 열악한 환경에 놓인다. 독거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연령이 높고, 성별의 비율이 편중되어 있으며(여성이 비율적으로 5배 정도 많음), 교육수준도 높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질병 진단 경험의 비율이 높고,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일반 노인에 비해 더욱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경희 외, 2012a; 김예성, 2014). 이렇듯, 독거노인은 복잡다기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악순환(Vicious Cycle)의 덫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더욱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性別)'과 '주거환경(住居環境)' - 을 지닌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익숙한 남성의 경우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손의성, 2007; 김영주, 2009). 최근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고령자의 경우 식사와 청소 등 일상생활문제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여성고령자에 견주어 생활상의 어려움이 높은 것(약 3배정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여성독거노인에 비해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안에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정경희 외, 2012b).

더불어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계층들이 집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Permanent Rental Housing)’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인간발달단계에서 노년에 해당되는 시기는 생활영역의 축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로 인하여 그 어느 연령대보다 주거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높다. 남성독거노인은 퇴직 등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축소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고독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남성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남기민·남현정,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거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밀집주거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일상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합하지 못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말미암아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이윤정, 2012). 상대적으로 열악한 집단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공지원주택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 빈곤계층의 마지막 보루(堡壘)라는 인식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져, 반사회적 행동과 경제적 곤궁으로 지역 구성원들과의 교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홍인옥, 2005; 하성규·서종녀, 2006; Taylor, 1998).

이처럼 이중적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의 남성독거노인은 가족들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구나사회학적 측면 역시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열악한 인구나사회학적 조건을 지닌 독거노인들에게 적합한 부정적 영향들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현상들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남성독거노인집단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감기’라 불리는 우울증은 특히나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우울은 자살의 ‘전조(前兆)증상’이라 불리며,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인 독거

노인들의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창진·황진수, 2008; 강상경, 2010).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계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수반되는 행위가 그러하듯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독거노인의 욕구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가 그들에게 필요한지에 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선제적 작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역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과 자살충동이라는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이러한 경험적 결과를 통하여 자살이라는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거의 질이 열악한 남성독거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본 연구가 지니는 고유한 측면이라 하겠다.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¹⁾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들에 주목하여 다음의 연구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은 그들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사회적 지지는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을 억제하는가?

셋째, 그렇다면 사회적 지지는 남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조절요인으로 작동하는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논리적 흐름을 지닌다. 첫째,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관련 연구문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연구의 분석방법을

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라는 특정 지역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대상에 대한 분석결과만으로 국가수준에서 사회복지정책 및 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장점을 지닌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2012년 기준 61,218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중구와 비교하여 3배(18,875명) 이상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3).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영구임대아파트의 남성독거노인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계층이라는 측면은 자료의 회소성에서 이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제시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연구의 체계를 설명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주요 연구과제의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독거노인 관련 선행 연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독거노인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며(Iliffe et al., 1992), 특히 저소득계층인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러한 대상들 중에도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은 독거노인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해 왔다.

먼저 고재욱과 김수봉(2011)은 노인자살이라는 사회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에 비해 국가차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그들의 자살에 미치는 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관계라는 변인에 대한 특성 및 자살경향성을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낮은 우울수준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관계의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유진(2013)은 내부자 시각에서 노인들이 자살행동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그들의 자살시도가 자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 주목한다. 자살이라는 행위를 시도하는 순간에도 인간은 살고자 하는 욕구가 기저에 깔려있기에, 연구자는 노인 자살예방은 자살에 대한 예측을 넘어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자살예방은 단순히 자살행위 자체를 막을 뿐 아니라, 자살위기에 처한 노인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드물게도 정연모(2007)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영구임대아파트만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더불어, 아파트라는 하나의 문화에서 주는 이웃과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과 소외감이

적지 않다는 점을 주요 결과로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독거노인들의 자살에 미치는 요인을 관측하고, 이러한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연구분야에 상당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자살방지의 일환으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은 독거노인집단에서도 취약한 대상이라 불리는 저소득 계층의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성독거노인 역시 사회적 약자로 젠더·노인·독거라는 다면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독거노인이 그들의 지닌 고유한 위험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젠더의 차이를 간과하였다(석희정, 2014).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대처방식도 자신이 처한 문제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측면에서(이현주·안기덕, 2013),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분명한 성 격차(Gender Differences)를 보인다는 점에서 남성독거노인의 연구는 여성의 그것과 구별되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러하다면, 과연 남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은 연동(連動)하는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성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요인과 자살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학문적 시도는 드물기에 차선택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통하여 추론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은 우울증과 자살과의 관련성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실천적인 함의를 제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과 자살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증과 자살률의 상관관계가 높고,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우울수준임을 제시하고 있으며(고재욱·김수봉, 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도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보다 더욱 높은 우울수준임을 언급하고 있다(박지은 외, 2012).

그런데, 실제로 우울수준과 실제 자살률은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송태민·진달래, 2013).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까? 우울과 자살의 상관관계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명확한 성 격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증적 연구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을 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여성의 자살생각정도가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자살률(Completed Suicide)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자살률이 여성자살률보다 오히려 약 2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강상경, 2010).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은 40대 중반 이후 남녀 모두에서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자살생각 비율의 증가는 특히 남성의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이상영 외, 2012). 이러한 경험적 결과는 남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과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논거라고 볼 수 있다.

3. 남성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의 역할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으로 하여금 돌봄을 받고 있으며, 혹여나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애나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Coulton & Frost, 1982). 그러하다면, 사회적 지지는 특정 대상(남성독거노인)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근대 자살이론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Joiner(2005)는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혜안(慧眼)을 제공한다.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Why People die by Suicide?)’ 라는 그의 저서에서 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인간은 ‘자살을 원하기 때문이고,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Because they want to. Because they can.)’라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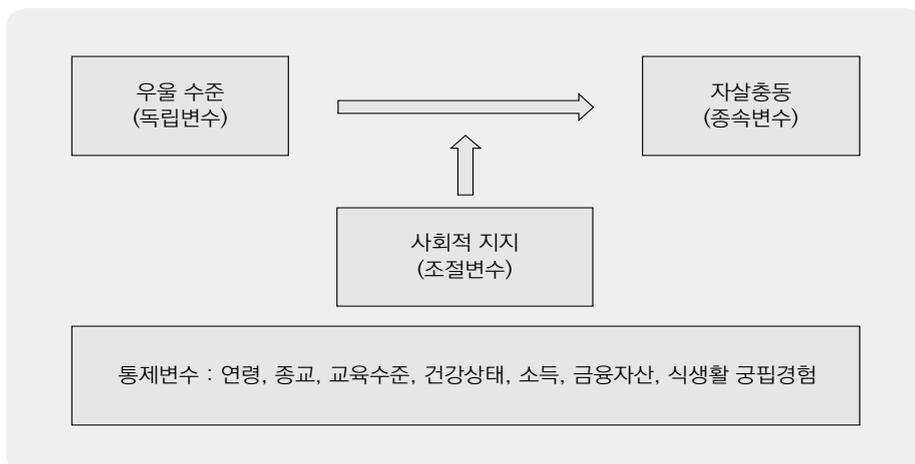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자살을 원하고 있을까? Joiner와 동료 연구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간명하지만, 명확한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가지 심리 상태가 동시에,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죽음에 대한 욕망이 자라난다고 주장한다. ‘낮은 소속감(Low Belonging)’과 ‘남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Burdensomeness)’이 그것인데, 개념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두 의식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의식만으로도 자살의 시도로 연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Joiner, 2010; Van Orden et al., 2010).

이러한 자살에 대한 원인규명은 남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충동과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독거노인은 낮은 소속감과 오랜 독거생활로 인해 남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살에 노출된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역(逆)으로 생각해 보면, 소속감을 높여주고, 짐이 된다는 의식을 낮추어주면 자살에 이르는 것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여러 경험적 연구 역시 이러한 이론적 논거를 지지하는데,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시키는 과정에 따라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으며, 남에게 짐이 된다는 느낌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한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을 감소시켜준다고 경험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은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강력한 변인인 것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한다.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라는 정신적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우울증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입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이민아 외, 2010; 이인정, 2011; Yeh & Lo, 2004).

지금까지 기술한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이라는 결과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작동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충동과의 관계와 둘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도식화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는 2013년 2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451명 만 60세 이상의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교육을 받은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종사들에 의해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04명이 조사거부 및 연락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총 347명의 남성독거노인들(60대 153명(44.1%), 70대 153명(44.1%), 80대 41명(11.8%)이 참여하였다. 분석자료의 설문문항은 체계적인 문헌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된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실행가(사회복지공무원)와 사회복지실천가(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조사가 필요한 분야의 질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신뢰수준 및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원 교육을 받은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설문에 응답한 참여자들에게 조사 목적 및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준수하였다(Rubin & Babbie, 2005). 더불어 응답자들에게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오직 연구를 위해 사용될 것임을 밝히고 조사를 착수하였다.

2. 변수의 구성과 측정

변수의 구성항목과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고 있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인구학적 특성	연령	독거노인의 만 나이(세)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독거기간	독거기간(개월)
	교육수준	초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으로 분류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하다=1, 건강하지 않다=0
	소득	1년 총 소득(만원) = 재산소득 + 사회보험 + 근로소득 + 공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소득
	금융자산	금융자산(만원)
	부채	총 부채(만원) = 금융기관대출 + 사채 + 카드 빚 + 외상 + 의료비 + 체납 보험료 + 체납 주거비 + 기타 부채
	식생활공평경험 (3개 변수)	3점 척도(자주 그렇다(1)~전혀 그렇지 않다(3))
자살충동	자살충동관련(6개 변수)	예=1, 아니오=0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12개 변수)	5점 척도(매우동의(1)~매우반대(5))
우울증	우울 정도(11개 변수)	4점 척도(극히 드물다(1)~대부분 그랬다(4))
상호작용항	우울 X 사회적 지지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

가. 종속변수: 자살충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충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Wintersteen(2010)에 의해 개발되고 번역되어 정신보건영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항을, 자살관련 연구에서 자살행위와 관련한 경험적 지표로 활용하였다(이민아 외, 2010; 모지환·배진희, 2011). 이 척도는 총 여섯 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지난 1개월 간 귀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든지 죽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까?’, ‘지난 1개월 간 귀하는 자해하고 싶었습니까?’, ‘지난 1개월 간 귀하는 자살에 대하여 생각했습니까?’, ‘지난 1개월 간 귀하는 자살을 계획했습니까?’, ‘지난 1개월 간 귀하는 자살시도를 했습니까?’, ‘평생 동안 귀하는 자살시도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고, 6개의 문항을 합하여 자살충동을 측정하였다.

나. 독립변수: 우울증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었으며, 신뢰도가 높은 척도인 CESD-11을 활용하였다(이미숙, 2002; Radloff, 1977). CESD-11은 우울증의 일차 선별용 도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1977년 개발된 이래 지역사회 역학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한 척도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11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측정하였으며, 각 지표의 경우 응답은 “극히 드물다”(1점)에서 “대부분 그랬다”(4점)로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CESD-11 우울수준 값을 도출하기 위한 산식에 따라 다음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먼저 1, 2, 3, 4로 기록되어 있는 변수 값을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하였고, 역(逆)코딩 문항(2번과 7번 문항)을 변환하였으며, 11문항의 합산한 뒤 20/11을 곱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우울증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Zimet et al., 1988)는 개인이 주변의 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는 Zimet과 그의 동료연구자들(1988)이 개발한 MSPSS 척도를 사용하였다. MSPSS 척도는 성인들이 주변 사람들로 부터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자기보고식(Self-Reported)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항목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주변사람이라는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분야별로 각각 4개의 하위문항,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매우 반대(1점)부터 매우 동의(5점)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4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이러한 12개의 항목의 결과를 모두 합친 이후 평균값을 산출(문항 수인 12로 나누어 줌)하였다(신준섭 · 이영분, 1999).

라.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이용한 주요 통제변수들은 연령(강초록·조영태, 2012; 안준희, 2012; Miller et al., 2001), 종교유무(강선경·김현진, 2011), 독거기간(림금란 외, 2011), 교육수준(박재산 외, 2009), 건강상태(심문숙, 2007; 김창진·황진수, 2008), 경제적 상태(한삼성 외, 2009), 식생활형편(김경희 외, 2010)이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이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분석방법

연구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상관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립변수의 순서를 정하여 모형에 투입하고 독립변수가 하나씩 투입될 때마다 각각의 회귀모형을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이론적 논거를 기초로 하여 분석모형을 설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주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모델 2>는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생성 및 투입하여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두 연속변인(우울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독립변수인 우울수준과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각각의 평균값을 차감하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과정을 실시하고, 평균 중심화된 두 변수를 곱하여 우울수준과 사회적 지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한다. 이후 평균 중심화된 두 변수 그리고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한다. 이처럼 평균 중심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첫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해결, 둘째,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을 경우 상호작용항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Baron & Kenny, 1986).

IV. 분석결과

연구의 분석결과 도출을 위하여 먼저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요 설명변수인 우울증이 종속변수인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서 어떠한 과정에서 조절효과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1. 변수들의 특성

아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살충동변수의 경우, 6개 문항 중 평균 1개 이상의 질문에 응답자들이 대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우울수준의 경험적 지표는 60점 만점(4점 척도, 11문항의 합을 CESD-11 산식으로 도출)에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균 약 18.83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5점 척도, 12문항의 합)를 문항수로 나누어준 평균값은 2.73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에 포함된 조사대상자 347명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인 남성독거노인의 평균연령은 약 7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절반을 상회(53.0%)하는 남성독거노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독거기간은 평균 약 15년 정도인 것으로 대답하고 있다. 한편, 남성독거노인의 현재의 경제적 영역(소득, 자산, 부채)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수입원이 다른 연령층에 매우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액이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상태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식생활을 궁핍 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 분석자료의 특성 (N=347)

구분	평균(또는 %)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살충동	1.05	1.46	0.00	6.00
우울수준	18.83	14.00	0.00	60.00
사회적 지지	2.73	1.11	1.00	5.00
연령	72.50	6.13	64.00	99.00
종교 (있음=1)	53.0%	-	-	-
독거기간 (월)	175.17	141.12	1.00	723.0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49.6%	-	-	-
중학교	22.2%	-	-	-
고등학교	19.9%	-	-	-
전문대 이상	8.4%	-	-	-
건강수준 (건강함=1)	69.7%	-	-	-
연 소득 (만원)	48.30	32.95	3.00	180.00
자산 (만원)	400.45	1218.91	0.00	16599.00
부채 (만원)	221.01	1470.21	0.00	25000.00
식생활 궁핍경험	1.42	0.52	1.00	3.00

2.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인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영향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모델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분석과정에서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모델 1>은 주요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들을 모두 투입하였고, <모델 2>는 연구의 주요 변수뿐만 아니라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생성 및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와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는 아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먼저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모델 1>에서 분석모델은 $R^2=.395$ 로 약 40%의 설명력을 보였다($F=16.651, p<.001$). 연구의 독립변수인 우울증은 종속변수인 자살충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12, p<.001$). 여러 선행연구들 역시, 우울증은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한다(한삼성 외, 2009; 이인정, 2011; 박지은 외, 2012). 또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낮을수록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117, p<.05$).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울수준이 높거나 사회적 지지가 낮은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자살충동이 높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나.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다음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모델 2>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완충역할(Buffering Effect)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김보옥, 2010; 배진희, 2011; 이인정, 2011).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역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은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107, p<.05$),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남성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자살충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 경우, 동일한 우울정도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이라 할지라도, 자살충동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정신적 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성독거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자살충동이라는 부정적 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두 개의 회귀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페이지 <표 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3.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구분	Model 1			Model 2		
		B	p-value	S.E	B	p-value	S.E
인구 사회학적 특성	(상수)	-.829		.836	-.846		.830
	연령	.012		.011	.011		.011
	종교여부	.090		.133	.117		.132
	독거기간	.000		.000	.000		.000
	교육수준 (기준변수 =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	.168		.162	.176		.161
	고등학교 졸	.406	*	.169	.402	*	.168
	전문대 졸 이상	-.177		.237	-.245		.237
	건강상태	.068		.124	.076		.141
	소득	.004	*	.002	.004	*	.002
	금융자산	.000		.000	.000		.000
	부채	.000		.000	.000		.000
	식생활 궁핍경험	.454	***	.042	.451	***	.126
	우울 수준	.053	***	.005	.050	***	.005
사회적 지지	-.153	*	.005	-.164	**	.062	
상호작용항	우울 X사회적지지			-	*	.004	
R-squared		.395			.406		
Adjusted R-squared		.372			.380		
F(df)		16.651*** (13)			16.086*** (14)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1. 연구결과 및 함의점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사회복지 정책적·실천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라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가구를 분석집단으로 설정한 연구라는 측면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적·경제적 취약집단이 밀집된 지역이며, 남성독거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성규, 2007). 그럼에도, 그동안 학문적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 대한 연구는 커녕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연구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의 설계부터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측면은 본 연구가 지니는 관련 분야에 기여하는 측면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는 부분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남성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제점을 규명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 연구에 함의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 독거노인 집단이 지니는 보편적 특성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질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독거노인이라는 열악한 계층에 대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미영,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성독거노인이라는 점에서, 공간 및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설계시부터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본 연구가 지니는 고유성이라 하겠다. 향후,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성별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구춘영 외, 2014).

둘째, 본 연구는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억제하여 완충효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이론적·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앞서, 남성독거노인의 정신적 영역 중 하나인 우울증은 자살충동이라는 극단적 사유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우울증의 문제를 경험하

고 있으나, 모든 현실에서 남성독거노인들이 자살충동이라는 극단적인 사유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나, 어떠한 일상생활 안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채현탁, 2007; 신근화, 2012).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며, 당연컨대 사회적 유대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면 배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감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이원기, 2013).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에 주목한 오영란(2013)의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 사회적 배제(排除)와 포섭(包攝)의 관점에서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10여 년 동안 자살대응정책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현재의 일본을 지적하면서, 유관정책이 정신건강영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자살경로에 대한 포괄적 파악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측면²⁾이며,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를 확장 및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방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물론, 정신건강에 편중된 현재의 사람중심적 대응(Person-Centered Strategy)이 노인 자살률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alsh(1997)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과 공간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이 보완적(補充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접근과 달리,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의 '단한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홍경준, 2013)'로 프레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한다. 단순한 신체적 성격의 돌봄 서비스와 구별되는 관계형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 연구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남성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독거노인에게 가족 역할의 보조를 위한 주거공동체의 도입 및 지역사회의 젊은 층과의 관계 맺기를 통한

²⁾ 전북 진안군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75.5명으로 전국 시군구 268개 중 1위를 차지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 지역은 1년이 지난 2012년 전국 자살률 조사결과에서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자살률 급감은 정신보건기관과 종교단체가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선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 자살위험군 63명을 특별 관리하여 매주 전화 상담과 웃음치료를 실시하였다(조선일보, 2013). 이러한 측면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아니지만,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구체적 사례라 하겠다.

정서적 가족의 형성(가령, 홈 셰어링), 독거노인복합공동체 같은 전문적 보호기관의 도입 등이 그러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상북도 경산시, 김천시, 문경시, 포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게 최소한 1명의 친구를 만들어 고독사와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과 경북 의령군에서 시작된 독거노인의 소외감 및 외로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독거노인 공동 주거사업 등은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확장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제언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화의 한계를 지닌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로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후 설계될 국가데이터에서 고령화 등으로 야기된 독거노인의 문제에 대한 실증적 자료축적을 고려한 데이터 설계의 신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자료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송태민 · 진달래, 2013).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남성독거노인의 자살충동 자체의 시간적 변화 그리고 자살충동 설명요인들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특성(동태적 측면)을 관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살충동의 변화 그리고 설명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살충동이라는 개념과 조사도구의 한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은 자살이라는 개념이 자살생각의 연속적 과정 -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 자살 시도(Suicidal Attempt) - 완결된 자살(Completed Suicide)' 이라는 연결고리로 제시한다(Bonnewyn et al., 2009). 이처럼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행위에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이므로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살생각은 의식(Consciousness)으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잔재를 갖고 있는 개념이거나 태도(Attitude)에 대한 개념정의 또한 간극(間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비판 역시 존재한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자살생각의 경우 자살시도에 바로 앞선 단계로써 ‘강력한 신호(Strong Signal)’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살을 경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노인의 자살시도가 자살로 이어지는 비율이 약 4:1이라는 결과(Murphy et al., 2013)는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경험적 자료라 하겠다. 여러 선행연구들 역시 자살생각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자살시도가 훨씬 많은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한다(Brown & Vinokur, 2003; Scocco & De Leo, 2002).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생각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는 시도는 자살행위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살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것을 예방하는 데 단초(端初)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살이라는 행위를 자살충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측면과 조사도구의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성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상대적으로 주거상황이 더욱 열악한 곳(예를 들어, 달동네 및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남성노인들에 관한 후속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총체적 접근과 더불어 이질적인 속성을 지닌 독거노인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조용운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를 마쳤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거정책, 복지 인식이며, 현재 노인복지, 주거정책, 복지인식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drcho815@skku.edu)

한창근은 서울대학교 학사 및 석사를 마쳤으며,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사회사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이며, 현재, 사회복지정책분석, 자산과 삶의 질, 노인복지를 연구하고 있다. (E-mail: chkhan@skku.edu)

참고문헌

- 강상경(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pp.67-100.
- 강선경, 김현진(2011). A study of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ligion/Spiritualit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한국인구학*, 34(2), pp.163-190.
- 강초록, 조영태(2012).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연령·경제상황에 따른 차별인지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3), pp.1-27.
- 고재욱, 김수봉(2011). 독거노인의 자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30, pp.29-48.
- 고미영(2013). *지역사회 독거노인의 건강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보건학과, 서울대학교, 서울.
- 구춘영(2014). 노인의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5(1), pp.24-32.
- 김경희, 김지수, 이봉숙, 이은경, 안영미, 최미혜(2010).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 영향 요인. *정신간호학회*, 19(4), pp.391-399.
- 김범수(2012). *무연사회: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NHK Muenshakai Project Syuzaihan(2010). MUenshakai: Muenshi Sanmannisen Nin No Shougeki. 서울: 용오름.
- 김보옥(2010). *사회관계망이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서울.
- 김영주(2009). 남녀별 독거노인과 동거노인의 건강습관,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비교. *기본간호학회지*, 16(3), pp.333-344.
- 김예성(2014). 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3), pp.400-429.
- 김유진(2013). 자살시도 노인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다시 살아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1), pp.127-146.
- 김창진, 황진수(2008). 노인성 질환과 우울증이 노인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한국노년학, 28(3), pp.425-442.

남기민, 남현정(2013). 노인의 주거환경 만족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3), pp.395-420.

림금란, 김희경, 안정선(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1), pp.33-47.

모지환, 배진희(2011). 자살행동 영향 요인: 성별, 연령별 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2), pp.121-145.

박재산, 이정찬, 김귀현, 문재우(2009).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26, pp.115-136.

박지은, 김병수, 배재남, 김기웅, 성수정, 조맹제(2012). 독거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의 특성: 희망 없음(Hopelessness)과 지루함(Boredom). 노인정신의학, 16, pp.97-103.

배진희(2011). 노인 자살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21(1), pp.39-67.

서울특별시(2013). 제53회 서울통계연보(2013). 서울: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석희정(2014).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3): pp.29-53.

손의성(2007). 배우자 사별노인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pp.289-322.

송태민, 진달래(2013).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신근화(2012). 독거노인의 가족해체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4), pp.79-104.

신준섭, 이영분(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pp.241-269.

심문숙(2007).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pp.171-181.

안준희(2012). 재미 한인노인들의 자살생각 모형 분석: 우울의 매개효과와 연령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8, pp.257-290.

오영란(2013). 일본의 노인자살예방정책 고찰: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관점. 한국사회정책, 20(1), pp.9-47.

윤해수(2010). 노인의 주거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대구.

- 이미숙(2002). 한국판 CES-D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의 요인구조분석에 대한 재검토. *보건과 사회과학*, 12, pp.43-62.
- 이민아, 김석호, 박재현, 심은정(2010). 사회적 관계 내 자살경험과 가족이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2), pp.61-84.
- 이상영, 노용환, 이기주(2012).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정경희, 강은정, 강상경, 이수형, 김영아(2009).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정(2012). 남녀 독거노인가구와 부부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2(4), pp.1119-1135.
- 이원기(2013).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Cacioppo, John and Patrick, William(2008). Loneliness: Human Nature and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서울: (주)민음사.
- 이인정(2011).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위기사건,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1(4), pp.34-62.
- 이현주, 안기덕(2013).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pp.33-62.
- 전영수(2011).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서울: 맛있는 책.
- 정경희, 오영희, 이운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외(2012a).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외(2012b).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보건사회연구원.
- 정연모(2007). 영구임대주택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대구.
- 조선일보(2013). 진안의 기적... 1년만에 자살률 1위→234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10/2013101000122.html?Dep0=twitter. 2013.12.24 인출.
- 채현탁(2007). 지역주민 중심의 독거노인 사회적 지지망 강화방안: 자원봉사자 연계 개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대구대학교, 대구.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대전: 통계청.

- 하성규, 서종녀(2006).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14(3), pp.159-181.
- 하성규(2007). *한국인의 주거 빈곤과 공공주택*. 경기도: 집문당.
- 한삼성, 강성욱, 유왕근, 피영규(2009). 노인의 자살생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9(1). pp.192-212.
- 홍경준(2013). 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 연북지의 쇠퇴와 그 대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65(2), pp.179-201.
- 홍인옥(2005).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해결 및 사회통합 방안. *도시와 빈곤*, 76, pp.32-60.
- Baron, M. Reuben & Kenny, A. Davi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 Brown, S. L., Vinokur, A. D. (2003). The interplay among risk factors for suicide ideation and suicide: the role of depression, poor health, and loved ones' messages of support and criticism.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pp.131-141.
- Bonnewyn, A., Shah, A., Demyttenaere, K. (2009). Suicidality and suicide in older peopl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9(4), pp.271-294.
- Coulton, Claudia, Frost, K. Abbie (1982). Use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by the Elderl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4), pp.330-339.
- Iliffe, Steve., Tai, Sharon., Haines, Andrew., Gallivan., Stephen., Goldenberg, Eva., Booroff, Angela, & Morgan, Paula (1992). Ar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 at risk group. *British Medical Journal*, 305(6860), pp.1001-1004.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Joiner, T. (2010). *Myths about Suicid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er, Jill., Segal, Daniel. & Coolidge, Frederick (2001). A Comparison of Suicidal Thinking and Reasons for Living among Younger and Older Adults. *Death Studies*, 25, pp.357-365.

- Murphy, Sherry., Xu, Jiaquan, & Kochanek, Kenneth(2013). Deaths: Final Data for 2010. *National Vital Statistics Reports*, 61(4), pp.1-11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pp.385-401.
- Rubin, Allen., Babbie. R. Earl (2005).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5th ed, California: Thomson Learning.
- Scocco, P., De Leo, D. (2002). One-year prevalence of death thoughts, suicidal ide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7, pp.842-846.
- Taylor, Marilyn(1998). Combating the Social Exclusion of Housing Estates. *Housing Studies*, 13(6), pp.819-832.
- Van Orden, Kimberly., Witte, Tracy., Cukrowicz, Kelly., Braithwaite, Scott., Selby., Edward & Joiner, Thomas(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pp.575-600.
- Walsh, J. (1997). Community building in theory and practice: three case studies. *National Civic Review*, 86, pp.291-314.
- Wintersteen, M. B. (2010). Standardized Screening for Suicidal Adolescents in Primary Care, *Pediatrics*, 125(5), pp.938-944.
- Yeh, Shu-Chuan Jenifer & Lo, Sing Kai(2004). Living Alone, Social Support, and Feeling Lonely among the Elderl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2(2), pp.129-138.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pp.30-4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Analyzing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Cho, Yong-Un

(Sungkyunkwan University)

Han, Chang-Keu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study aim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of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Main research qu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2)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We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347 participants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on Nowon-gu, Seoul, Korea. The Mental Health Survey Data were conducted by mental health social worker and public social worker from February to March, 2013. This study reports several noteworth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depression of male older adults significantly influenced suicidal attempt. Second, the findings confirm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among mal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should be introduced.

Keywords: Elderly Man Living Alone, Permanent Rental Housing, Suicidal Attempt, Depressi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